

POLITICS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여수광양항, 동북아 에너지 허브항 도약을”

“완도 섬 지역 식수난 해소를”
이철 도의원, 시설 확충 요구

전남도의회 이철부 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사진)이 완도 섬 지역의 고질적 식수난 해소를 위해 광역상수도 시설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완도 남도는 2023년 무려 317일 동안 ‘1일 급수, 6일 단수’의 제한급수를 겪었다”며 “이는 기존 최장 기록인 100일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로, 섬 주민들의 삶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길도·노화도·금일도·소안도 등 다른 섬들도 장기간 제한급수를 반복하며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넓도와 서남도, 소안도는 광역상수도 공급망에서 제외돼 해수담수화 시설이나 생수 구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해수담수화된 물은 사워나 목욕 시 이질감이 커 생활 불편이 심각하다”며 “육지에서는 상수조차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더는 주민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남도·서남도는 노화에서 해저관로를 설치·연결하는 방식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겠다”며 “완도군 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철 부의장은 “이제는 전라남도가 직접 나서서 상수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섬 주민 누구나 격정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남 북평에서 노화도를 잇는 보길·노화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추진 중이며, 오는 2027년 12월까지 노화도에 광역상수도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 9월 대표 전통주
‘정고집 나주배약주’ 선정

전남도가 9월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남도약주의 ‘정고집 나주배약주(약주·15%)’를 선정했다. 지역 특산물인 나주배와 전남 쌀로 빚어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운 풍미가 특징이다.

나주배약주는 배 수확철인 9~11월에 제철로 즐기기에 제격이다.

총 2200시간에 걸친 저온 발효와 숙성을 통해 부드러운 바다감과 깔끔한 뒷맛을 갖췄으며, 전통 누룩균주를 활용해 차별화된 풍미를 더했다. 황금빛 색상과 달콤한 맛으로 젊은 층과 여성 소비자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술은 2023년 벨기에 브뤼셀 국제식음료품평원(ITT)에서 국제우수미각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국내 쌀과 과일로 만든 생약주가 해당 대회에서 수상한 것은 처음이다.

단독으로 즐기거나 제철 과일, 가벼운 한식과 곁들여도 잘 어울린다. 남도약주는 나주배약주 외에도 쌀 생맥걸리, 옛날 생동동주 등 다양한 전통주를 선보이며 전통 방식과 현대적 주조 기법을 접목해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나주배약주는 전남 가을의 맛을 가장 잘 담은 전통주이자, 국제 품평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프랑스스러운 지역 브랜드”라며 “전통주 브랜드 가치 제고와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 전통주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주철현, 국정 과제 ‘북극항로 준비 포럼’ 출범
여수광양항, 석유화학산업·LNG 인프라 강점
2013년 국내 최초 북극항로 시범 운항 경험도

기후변화로 북극항로 개척이 이제명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 가운데 여수·광양항이 동북아 에너지 자원 물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은 18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정부·학계·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인 ‘북극항로 준비 공동포럼’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해상운송로인 북극항로는 기후변화로 개방 가능성이 높아지며 글로벌 해운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해 ‘북극항로 개척’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극항로 논의는 부산

항 등 부울경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부산항은 세계적 컨테이너 항만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2022년 기준 북극항로 물동량 3400만 t 중 LNG·가스운송수가 60%, 원유·석유제품이 21%를 차지하는 등 북극항로의 대부분 화물은 비컨테이너 자원 화물이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은 부산항, 에너지·자원 화물은 여수·광양항과 울산항, 수도권 배후 물류는 인천항·평택항 등 선종별·화종별 특성을 살린 거점항만 전략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여수·광양항은 지난 2013년 국내 최초 북극항로 시범운항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와 LNG 인프라를 갖춘 만큼 북극항로 에너지자원 화물의 최적 거점으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권향엽, 김상욱, 김원이, 문대림, 문금주, 이병진, 이원택, 정일영, 조계원, 허종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인천, 여수·광양, 부산, 울산 등 전국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과 함께 18일 국회에서 ‘북극항로 준비 공동포럼’ 출범식을 열었다.

잡힌다.

주철현 의원은 “해수부 역시 국가 물류안보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선종별·화종별 특화 거점항만 전략에 공감하고 있다”며 “오늘 출범한 포럼을 통해 국회와 정부, 학계·업계가 힘을 모아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개척의 핵심 축으로 성장시켜 동북아 에너지 허브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 출범식에는 권향엽, 김상욱, 김원이, 문대림, 문금주, 이병진, 이원택,

정일영, 조계원, 허종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인천, 여수·광양, 부산, 울산 등 전국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해양수산부 등이 함께 참여해 뜻을 모았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 ‘AI 보안 시스템’ 사이버 위협 막는다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랜섬웨어 공격 차단 효과
타 지자체 파급 효과 호평

광주시의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인 ‘AI 기술을 활용한 랜섬웨어 방어체계 구축’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광주시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급증하는 신·변종 랜섬웨어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경계형 보안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사버보안 기술로,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광주시는 최근 전북 군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제42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랜섬웨어 방어체계 구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시·도가 제

출한 정보화 우수사례 중 본선에 진출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AI 기술을 활용한 랜섬웨어 방어체계 구축’ 사례를 발표해 사이버보안 기술력은 물론 타 지자체·기관 파급 효과, 확장성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한 46종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보안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업무용 PC 데이터를 수집해 그 특화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고도화했다. 실제 24종의 랜섬웨어를 활용한 모의공격 실증에서 탐지 정확도 98.2%를 달성했으며, 기존 보안장비로는 탐지하지 못했던 잘 알려지지 않은 랜섬웨어 7종까지 인공지능(AI)이 탐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스템 도입 효과도 뚜렷했다. 도입 전에는 사람이 직접 월평균 약 5000건의 보안업무를 처리했으나, 도입 후에는 월 1만5000건 이상을 자동 분석·관계해 처리량이 3배 증가했다. 위협탐지부터 대응조치까지 소요시간도 기존 10분에서 3분으로 단축됐다.

광주시는 현재 인공지능(AI) 보안 관제 시스템과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지난 8월 기준 악성코드 3575건, 서비스거부(DDoS) 1만 4046건 등 총 10만5807건의 사이버 위협을 탐지, 100% 대응했다.

특히 올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간 중에는 사이버보안상황실을 운영해 대회 운영에 대한 실시간 보안관제를 수행하는 등 사이버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장관상 수상은 광주시가 추구하는 AI 기반 행정혁신도시 실현의 대표적 사례”라며 “시민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행정정보 자산 그리고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AI 보안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사이버보안 고도화와 AI 기반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디지털 신기술 지원,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기술 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 드론운용단 경진대회’ 개최…재난상황 발생 대비

27일 북구 드론공원 일대
전남대 유학생 30명 초청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드론 운용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제4회 광주시 드론운용단 경진대회’가 오는 27일 북구 드론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전남대에 재학중인 해외 유학생 30명을 초청, 드론을 활용한 광주의 재난대응체계를 홍보하고 실제 드론을 운용하는 체험을 제공한다.

경진대회는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드론을 활용해 현장 지원에 나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해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현재 광주에서는 드론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9월 한 달간 드론을 활용한 환경오염 단속을 실시해 불법 폐기물 처리와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광주 북구는 주민대상 무료 드론교실을 운영하며 드론 문화의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다. 광주교통



지난해 열린 ‘광주시 드론운용단 경진대회’ 모습.

공사는 드론 테러 대응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드론을 이용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진대회는 1부에서 드론운용단의 신입 대원 7명에 대한 위촉식과 민방위 유공자 표창 수여하고, 2부에서는 전남대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드론축구, 드론원격조종, 드론 관제차량 등 체험활동이 진행된다.

김준영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드론운용단은 봉사정신을 기반으로 발족한 뒤 시민의 생명과 재산

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해외 유학생들에게 드론을 활용한 재난대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광주시의 선진적인 드론 운용 체계를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3월 공식출범한 광주시 드론운영단은 5개 지회에 총 38명의 대원들이 재난상황과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실시간으로 광주시 종합상황실에 영상물을 전송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드림챌린지’로 일경험 청년과 소통

강기정 시장, 청년들과 진로·취업 등 주제로 고민 나눠

광주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에 참여하는 18기 드림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드림챌린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기주도형’(주 25시간·5개월) 참여청년 300여명과 ‘집중참여형’(주 40시간·3개월) 청년 80여명이 함께 했다. 프로그램은 면접 특강,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 강연, 드림청년 네트워크 활동으로 구성돼 교류와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강 시장은 이날 청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무·몰·보(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통해 일상 고민부터 취업·정착 문제까지 의견을 나눴다.

청년들은 “본인만 알고 있는 맛집”, “나만의 취미”, “가지고 있는 고민” 등 자신들의 관심사 등을 공유하며 꿈과 고민을 이야기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최근 AI 2단계 사업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국가AI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인공지능 중심도시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며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시장에 반영해 취업과 지역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교육컨설팅 전문가



정고는 강사의 특강은 ‘합격을 말하는 면접 스킬’을 주제로, 면접 준비 방법과 답변 전략 등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또 네트워크 활동 시간에는 독립영화 ‘신기록’을 감상하고 허지는 감독과 대화를 통해 영화의 메시지를 공유했다.

한반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청년 400명이 드림터 244개 기관·기업에서 3~5개월간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채용 연계 특전(인센티브)과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해 청년의 자립과 취업 연계를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경험을 쌓고 취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민주 전남도당, 권역별 ‘1년 활동보고 토론회콘서트’

오늘 보성·여수 27일 화순·목포…소통·정책 제안 병행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주철현)이 도민 앞에 지난 1년간의 활동을 공개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2025 민주당 전남도당 1년 활동보고 토론회콘서트’를 권역별 순회 형식으로 개최한다.

도당은 18일 “도민과 당원에게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투명하게 보고하고, 민생안정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9월 19일 오전 보성체육동전우회(순천·광양·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 권역), 오후 여수시민회관(여수 권역) △9월 27일 오전 화순 축협 대회의실(나주·화순·담양·함평·영광·장성 권역), 오후 목포수산물유통센터(목포·영암·무안·신안·해남·완도·진도 권역) 등 4차례에 걸쳐 열린다. 권역별 참석 인원은 200명에서 최대 700명에 이를 전망이다.

프로그램은 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인사, 전남도당 1년 활동 보고, 민생경제연구소 안전길 소장이 진행하는 토론회콘서트로 구성된다.

토론회콘서트에는 검사·검사소임 이희성 공동대표, 주철현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해 현안을 논의한다. 현장에 서 도민 의견 청취와 질의응답도 이뤄져 정책 제안과 건의가 반영될 예정이다.

주철현 도당위원장은 “도민 앞에 지난 1년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함께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며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도민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당 관계자는 “성과 보고를 넘어 도민과 실질적인 소통과 참여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정당 활동이 지역 주민 삶과 맞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